



장애인단체 “폭탄인상 본인부담금 폐지하라”

복지부 “최저임금 상승 따른 활동가 단가 인상…상한선 기준 맞춰”

최근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한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이를 ‘폭탄인상’이라며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활동가 단가 인상 때문에 부담금을 인상했다며 상한선 기준 5%에 맞춘 인상액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나리카워저동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이 폭탄으로 과금됐다”며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2011년 법률로 제정된 제도로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

증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일정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높게 측정돼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며 상한액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로 정하고 있다”며 “추가급여는 상한액 없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상한액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 최대 월 4만원에 불과 하던 본인부담금이 2010년 최대 월 8만원으로, 2019년에는 11만3500원으로 인상됐다”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개인이 부모나 형제 등과 함께

살면 이들도 가구소득으로 산정돼 장애인의 소득이 0원이라도 함께 사는 가구 구성원의 소득만큼 본인 부담금이 산정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장애인들이 종합조사를 받게 되면 추가부담금까지 포함해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며 “현재 연차적으로 절차에 따라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을 조정 중이며 상한액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상률과 관련해서는 “상한선이 5% 정도인데 계속 그 선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등 물가 인상에 따라 오르게 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뉴스1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 따뜻한 겨울용 방한점퍼 기부

41가정에 300만 원 상당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손홍식)은 최근 매서운 한파를 이겨낼 겨울용 방한점퍼 41벌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강진읍사무소에 기탁해 지역사회에 헌신한 감동을 주었다.

기부한 겨울용 점퍼는 복지이장을 통해 강진읍 41개 마을 독거노인, 조손,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 손홍식 위원장은 “강진읍주민



자치위원회에서는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방한점퍼 나눔을 계획하게 됐다. 주위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

했다. 강진읍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한복, 내의 등을 기부해오고 있다.

김진=김영일 기자

(사)무안군장애인협회, 새해맞이 장애인 후원품 전달

90여명 가정 일일히 방문해 동절기 안부도 살펴



(사)무안군장애인협회(회장 함성장)는 2일 경자년 새해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랑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회원들이 관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90여명의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동절기 안부를 살피고 소금, 오리훈제, 김 등 생필품 전달을 통해 이웃사랑을 함께 실천했다.

함성장 회장은 “지속적인 나눔실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분위기 확산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무안군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의 권리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나눔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무안=이기성 기자

“미혼모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지원 대상자를 찾습니다”

영암군, 홀트아동복지회 ‘365 키즈키트 지원 사업’ 오늘까지 접수

영암군은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처음 있는 민간 복지사업인 홀트아동복지회 “365 키즈키트 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를 6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상 혼인?이혼 기록이 없는 미혼모 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지원하는 민간 복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총 130가구를 지원하며, 영암군은 총 6가구의 신청서를 접수·추천할 예정이다.

이에 군 주민복지과에서는

여러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미혼모 가정에서 초등학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안내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개인정보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이며, 6일 까지 주민복지과(무한돌봄팀 470-2036)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즉시 관련 사업부서에 소득 및 보장정보의 토 확인 후 홀트아동복지회에 추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며

홀트아동복지회에서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하여 심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과 8월, 각 2회에 걸쳐 책가방, 학습교재, 학용품 등 물품을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간복지자원의 지원기준은 대부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아동, 한부모,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해당지원 대상 가정에서 미리 관련부서에 지원 신청을 통해 소득재산 및 보장 정보가 있는 경우 타 용도 정보 유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 가능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무한 돌봄의 자세로 드롭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